

대화의 격률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 연구 - 대학생들의 당혹스러운 대화 사례 연구를 통하여 -

이창학

공주교육대학교

A Study of the Necessity for the Revision of Maxims of Conversation -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University Students' Embarrassing Conversation-

Lee, Chang-hak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6.4, 499-510. This study suggests the revision of maxims of conversation by analyzing the questionnaire about the university students' unpleasant conversation. The violation of maxims of conversation is widespread all around the university campus and even in class there have been lots of embarrassing communication between students and professors. As a result of questionnaire investigation, this study needs to revise the maxims of conversation to explain the various cases that we can not analyze with the present maxims of conversation. To do that, this study suggested an interactional language function that emphasizes social relationships and focuses on the person rather than on the information. Moreover, my final suggestion is that professors should explain maxims of conversation on the first day of class and prevent the unpleasant conversational situations in advance that may occur afterward in a class.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eywords: Cooperative principle, Maxims of conversation,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teractional language, entailment

 OPEN ACCESS



<https://doi.org/10.18627/jslg.36.4.202102.499>

pISSN : 1225-4770
eISSN : 2671-6151

Received: January 10, 2021

Revised: January 29, 2021

Accepted: February 08, 2021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2021 the Moder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본인이 투고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추후 중복게재 혹은 표절된 것으로 밝혀질 시에는 논문게재 취소와 일정 기간 논문 제출의 제한 조치를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1. 서론

최근 대학교 교육현장과 가정 그리고 여러 집단에서 일어나는 교수, 학생 그리고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들 간의 대화불통은 새삼 우리에게 대화의 격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진정한 가치 있는 의사소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대화의 격률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된다. 얼마 전에 주위의 친한 몇몇 교수들로부터 수업 중에 일어난 학생들과의

불쾌하고 황당한 대화의 사례를 듣고 심각성을 깨달아 대화의 격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 이 논문을 쓴 동기이다.

그러면 그 대화의 격률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공유되는 대화의 격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대화의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대화의 격률을 보완해야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을 추가해야 대화의 격률의 부족한 면을 논리적으로 설명할까?

위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본 연구는 첫째, 현재의 교육현장과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학생들의 비상식적인 대화의 양상을 분석하여 협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의 격률의 관점으로 설명해보고 둘째, 만약 현재 언어학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대화의 격률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Brown과 Yule(1983)의 상호작용적 언어 기능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대화의 격률을 보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 Grice의 대화의 격률과 함축

Grice(1975)는 언어사용에서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하여 우리가 준수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원칙은 대화에서 언어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Grice는 대화상의 협동원칙(cooperative principle)이라 하고, 이 협동원칙은 네 가지 대화격률(maxims of conversation)로 되어있다고 말한다(이익환·안승신, 2001: 231-232).

(2-1) 질(quality)

- a. Do not say what you believe to be true
- b. Do not say that for which you lack adequate evidence

(2-2) 양(quantity)

- a. Make your contribution as informative as is required (for the current purpose of the exchange).
- b. Do not make your contribution more informative than is required

(2-3) 관련성(relevance)

Be relevant.

(2-4) 양태(manner)

- a. Avoid obscurity of expression.
- b. Avoid ambiguity.
- c. Be brief (Avoid unnecessary prolixity).
- d. Be orderly.

위에 기술된 격률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2-1)의 질은 대화에 공헌하는 것이 참(true)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2)의 양은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뜻하며, 이 격률은 정보의 양이 요구되는 것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2-3)의

관련성은 동문서답식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2-4)의 양태는 말하는 내용을 어떻게 말해야하는가를 명시하는 것으로, 결국 명료하게 말해야한다는 뜻이다.

Grice의 대화의 격률을 가능하게 만든 기저에는 모든 언어 표현이 가질 수 있는 대화상의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s)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화상의 함축은 의사소통 자들이 사실을 말해야만 한다는 폭넓은 동의를 가지는 것처럼 언어사용을 위한 규범의 존재에 의존하는 추론이다. 화자, 저자, 청자들은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사소통의 규범을 알고 수용한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수용은 비록 개개인이 때때로 그 기준을 충족 할 수 없고 이따금씩 속임수(예를 들어, 거짓말을 함으로써)를 쓴다 할지라도 추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Grice(1975 and elsewhere)는 몇몇 대화상의 규범을 확인하고 그 규범들이 발화가 기저의 문장 속에서 문자적으로 암호화된 것 이상을 전달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추론에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격률이 협동적인 대화에 대한 기초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Griffiths, 2006: 134-135).

Quality-try to be truthful when communicating.

Quantity-give appropriate amounts of information, not too little and too much.

Manner-utterances should be clear: brief, orderly and not obscure.

Relevance-contributions should be relevant to the assumed current goals of the people involved.

격률은 Polonius의 Laertes에 대한 가르침(precept) ‘Give every man thine ear but few thy voice’ (Shakespeare, *Hamlet*; Grice의 격률의 하나가 아니라)의 예 에서처럼 널리 적용할 수 있는 간결한(pithy) 종류의 충고이다. Grice의 격률은 ‘마치~인 것처럼’ 가정의 역할(as-if role)을 한다. 즉, 그는 말하는 방법에 대한 충고로써 격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화자가 이러한 격률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끌어지는 것처럼 대화가 진행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2-5 a)에서 X란 사람이 Y란 사람에게 진술을 했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면 Y가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후속적인 일 중 두 가지가 (2-5 b, c)에 보여 지는데, 하나는 X에 대한 응답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진술이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흥미로운 것은 둘이 질의 격률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2-5) a. X to Y: “The Greens will get more votes in the next election.”

b. Y to X: “What’s the evidence for that?”

c. Y to Z: “X believes that. come election time, the Greens will get more votes.”

(2-5 a, b)에서의 연속의 자연스러움은 질의 격률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한 요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보여준다. 의사소통이 진실일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동의는 하나의 추론 즉 함축으로 이끌어지는데, 화자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질의 요건을 충족하기를 희망할 수 없다. 많은 상황에서 대화자는 입증자료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2-5 c)가 그렇게 하는 한 방법이다. X가 인용하는 증거가 정치적인 여론조사 자료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에서 나올 필요는 없다. 그 증거는 미장원에서 몇몇 사람들이 한 말에 기초를 둘 수도 있다.

양의 격률의 한 축인 너무 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함축은 (2-6)에서 설명된다(Griffiths, 2006: 136-138).

(2-6) a. “Are you from America?”

b. “No” followed by silence + > ‘I am not willing to talk to you any further’¹⁾

일본에서 (2-6 a)는 나에게 말을 거는 매우 흔한 대화 시작이다. 위 대화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례한 의미의 함축은 내가 (2-6 b)의 간단한 대답으로 결코 말을 멈추지 않은 이유이다. “No”는 사실일 수 있지만 불충분하므로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 출신인지 계속 말을 한다.

그런데 간단한 “No”가 항상 무례한 경우는 아니다. (2-7)의 서두에서 (2-6)의 단어를 다른 문맥에 넣으면 상세하지 않은 “No”로부터 함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2-7) a. “That is an interesting accent. Let me guess where you are from. Are you from America?”

b. “No”.

함축은 (2-8)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양의 격률의 또 다른 축 즉 너무 많은 정보제공을 피하라는 것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2-8) a. “Can anyone use this car park?”

b. “It’s for customers of the supermarket.” +> ‘No’

만약 주차장이 모든 사람의 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슈퍼마켓의 고객을 포함할 것이고 그들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B의 발화는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 진다. 그러므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양의 격률이 준수하는 가정은 주차장이 슈퍼마켓 고객을 위한 것이지 다른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슈퍼마켓 고객을 명시한 함축을 불러오고 그것은 A의 질문에 대한 정보제공적인 부정 대답에 해당된다.

(2-8)에서는 두 가지 특징의 함축이 관찰된다. 첫째, 함축은 간접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간접성은 공손함을 가질 수 있다. B의 대답은 공손하지만 반면에 단지 “No”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할 수도 있다. 둘째, 함의(entailment)가 아니라 함축에 기반 해서 B의 대답에 의해 전달된 ‘no’의 의미는 사실로 보증되지 않고 오히려, 예를 들면 그 말은 오늘처럼 차가 반쯤 찼을 때는 누구든 여기에 주차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B가 덧붙이면 무시될 수가 있다.

(2-9)에 있는 문장은 직접적인 인과관계(a)와 간접적인 인과관계(b) 사이의 구분을 설명한다.

(2-9) a. Helen switched the lights off.

b. Helen caused the lights to go off. +> ‘She did it in an unusual way’

1) X uttering “U” +> ‘i’는 발화 U를 만들어내는 언어 사용자 X가 명제 i를 함축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표기는 Levinson(2000)으로부터 빌어 왔고, 발화는 큰 따옴표(“ ”)에 의미는 작은 따옴표(‘ ’)에 닫혀 진다.

Grice의 양태의 격률의 일부는 간결함(brevity)을 목표로 한다. 간접사역 문(indirect causative)(2-9 b)은 직접사역 문(2-9 a)보다 길다. 둘 문장은 불이 꺼진 것을 함의한다. 불이 나가게 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스위치를 작동하는 것이다. Levinson(2000: 136)은 태도의 규범(manner norms)으로부터 벗어난 효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언급된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불을 끄는 비일상적인 방법은 도자기 가마를 작동시킴으로써 회로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거나 전구를 깨뜨릴 정도로 매우 높은 곡조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모든 함축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단지 Helen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불을 끄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추측이다. 즉 *Helen caused the lights to go off by flicking the switch in normal way*는 모순이 아니다.

양태의 격률에 따르면 우리의 대화(또는 글)는 순서가 바뀐다(orderly)한다. 이것의 의미는 다음의 예에서 설명될 수 있다(Griffiths, 2006: 139-141).

(2-10) a. We sold our car and bought a tandem bicycle.

+> 'Car sale before buying of tandem'

+> 'Car sale led to buying of tandem'

b. We bought a tandem bicycle and sold our car.

+> 'Tandem bought before car was sold'

+> 'Tandem purchase had car sale as a consequence'

c. You asked what happened last summer: we sold our car and bought a tandem bicycle. The two transactions came through on the same day, but they were unrelated; we'd begun separate negotiations for them weeks beforehand.

d. We didn't buy a tandem and sell the car-we wouldn't have been able to afford to do that; we sold the car and then bought the tandem.

e. Her name is Moira and his name is Jon.

(2-10 a, b)에서 *and*는 'and then' 또는 심지어 'and consequently'를 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2-10 c)은 이러한 부가적인 해석이 함축이지 *and*의 고유한 의미 양상이 아니라는 증거를 나타낸다. 함축은 모순 없이 제거될 수 있고 그것은 (2-10 a)을 (2-10 c)로 바꾸는 장황한 보충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2-10 a, b)의 예는 단순히 모든 가능한 세 개의 연속 행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2인승 자전거 구입 전 자동차 판매와 차 판매 전 자전거 구입 그리고 동시적인 차 판매와 자전거 구입이 그것이다. 그 예는 모두 +> 의 오른쪽에 보여진 함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발화자들이 사건을 이야기 할 때는 순서적이라는 가정이 청자나 독자로 하여금 만약 두 사건이 연속 표지(*before, first, then* 그리고 *after*와 같은)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한 순서로 제시된다면 발화 순서는 직접적으로 사건의 순서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백과사전적인 지식, 즉 차를 파는 것이 자전거를 살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거나 자전거 소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준다는 것은 결과나 인과관계에 대한 더 이상의 함축에 대한 기반이다.

(2-10 d)의 *didn't*란 단어는 함축적인 순서를 부정한다. 함축 부정의 가능성은 그 함축의 실제에 대한 증거가 된다.

(2-10 e)의 예는 *and*에 의해 연결된 절이 상태, 즉 어느 시점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존재를 기술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and*가 순서나 결과를 함축하지 않고 두 명제의 최소한의 연결을 전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Her name is Moira and his name is Jon*은 *His name is Jon and her name is Moira*와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Grice의 관련성 격률은 대화에 대한 협력이 대화자들이 가정한 현재의 목표와 관련이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What’s the date?”는 만약 질문자가 나폴레옹 시대의 유물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것에 흥미를 갖고 있다면 “Early twenty-first century”는 합리적인 대답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친구가 은행서식을 채우면서 “What’s the date?”라고 물으면 “Early twenty-first century”는 웃음거리 대답이 될 것이다. 관련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대화 순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는 (2-11)의 예에서 설명된다.

(2-11) A: (Picking up a book from a display in a bookshop) “Have you read *Long Walk to Freedom*?”

B: “I find autobiographies fascinating.” +> ‘*Long Walk to Freedom* is an autobiography’

+> ‘Yes, I have read it’

A가 *Long Walk to Freedom*에 대해서 물었다. B가 자서전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A는 B가 그 책을 읽었는지를 물었다. B는 그녀가 매력적이라고 안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B가 질문을 무시했지만 그 대화는 B의 협력이 A의 질문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협조적이고 일관성 있게 읽혀질 수 있다. 만약 그 책이 자서전이라면 B는 주제를 바꾼 게 아니다. 네가 읽은 책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면 평가를 제시하는 게 관례적이다. 만약 *Long Walk to Freedom*이 자서전이라면 그녀가 자서전이 매력적인 것을 알았다고 말함으로써 B는 그것을 평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가 그 책이 자서전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그 책을 읽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측은 B의 발화를 A의 질문에 관련성 있게 연결시켜서 그들이 이어질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 추측은 단지 함축이고 그것은 그 추측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므로 B가 만약에 그녀의 발화를 확장해서 “I find autographies fascinating, but I haven’t read that one yet.”과 같이 함축 중 하나를 없애려고 한다면 B는 모순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심지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만약 B가 잘못 생각해서 *Long Walk to Freedom*이 자서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녀는 “I find autographies fascinating; so they are the only books I tend to read; I’m not into Chinese history.”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함축은 단언된(asserted) 것, 즉 말해진 의미(what is said)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대화상의 협동원칙에 따라 추론되는 간접의미이다. 이러한 추론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가능해지는데 첫째, 화자가 대화 격률을 준수함으로써 야기할 수도 있고 둘째, 격률의 의도적 위반에 의해서도 함축이 가능하다.

3. 대화의 격률 위반 사례 및 분석

본 논문의 목적에서 언급했듯이 이 논문은 최근 대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어색하고 유쾌하지 못한 대화의 양상을 바탕으로 대화의 격률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한 논문이므로 사례 수집을 위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아래에 제시된 예는 공주소재 G교육대학교 3학년 2개 반과 4학년 2개 반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들이다.

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에게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답변을 관찰 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요구하는 대화의 격률 위반 분석에 필요한 대표적인 대화사례 위주로 예문을 구성했다.

3.1 학교현장에서의 대화의 격률 위반 사례

(3-1) 교수 : 우리 이것 한번 해볼까?

학생 : 그걸 왜 해야 하나요?

⇒ 상대방에 대한 체면 유지와 존중의 상호작용적 언어사용 위반.

(3-2) 교수 : (학생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개념을 누차 설명한 후) 왜 그것도 모르지?

학생 : 배우려고 왔는데 왜 혼내 켜요?

⇒ 상대방에 대한 체면 유지와 존중의 상호작용적 언어사용 위반.

(3-3) 교수 : (이미 배운 개념을 학생들이 모르자 화가 나서) 왜 이것도 아직 모르니?

학생 :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오늘 집에서 안 좋은 일 있으셨나?

⇒ 질의 격률과 상대방의 체면유지와 존중에 대한 상호작용적 언어기능 위반.

(3-4) 교수 : (점심시간에 보강이 걸렸을 때) 학생은 왜 수업시간에 음식을 먹나?

학생 : 지금이 점심시간이고 배고파서요.

⇒ 상대방의 체면 유지와 친절함의 상호작용적 언어 사용 위반.

(3-5) 교수 : (수업시간에 음식물을 먹는 학생에게) 왜 수업 중에 음식을 먹나요?

학생 : 다른 애들도 먹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 관련성 격률 위반 및 상대방의 체면 유지와 친절함의 상호작용적 언어 사용 위반.

(3-6) 학생 : 이번 시험 정말 어렵지 않았니?

학생 : 야! 이것 좀 봐봐. 이거 진짜 재밌다.

⇒ 대표적인 관련성 격률 위반 사례 -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화 주제의 맥락을 잘 파악하고 상대방의 말에 답한 후 자신이 원하는 대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Brown과 Yule(1983)이 기능(function)면에서 언어를 상호작용적 언어(interactional language)와 업무적인 언어(transactional language)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 예는 상호작용적 언어 사용의 몇몇 특징 중 하나인 화제를 바꿀 때 화자들 사이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 바꾸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된다.

(3-7) 학생 :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밥 뭐 먹을래?

학생1 : 아무거나 좋아.

학생2 : 나도 아무거나... 밥도 좋고 빵도 좋고 그냥 아무거나 되는대로.

⇒ 양과 양태의 격률을 위반 - 상대방의 질문에 곰곰이 생각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필요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모호한 표현을 피한다.

(3-8) 교수 : 학생 왜 지각했나?

학생 : 아침에 눈을 뜨니까 9시 반이었는데 아침밥을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귀여운 강아지를 봐서요.

⇒ 양과 양태(불필요한 상황함을 피하라는) 격률 위반

(3-9) 교수 : 자, 이제 과학 실험을 서둘러했으면 좋겠다.

학생 : 저 춤추고 싶은데요.

⇒ 관련성 격률위반 - 상대방이 묻는 말에 알맞은 대답인지 생각해보는 습관 필요.

- (3-10) 교수 : 학생, 어제 뭘 했는데 이렇게 좋아?
 학생 :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 현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양의 격률위반
- (3-11) 학생 : 교수님, 요즘 잘 지내세요?
 교수 : 그럼, 우리 아들이 취업을 해서...(미주알고주알 10분 동안 이야기)
 ⇒ 양의 격률 위반
- (3-12) 학생 : 너 나이가 몇이야?
 학생 : 응, 나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 양과 양태의 격률 위반
- (3-13) 교사 :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학생 : 그냥요.
 ⇒ 양의 격률 위반과 체면 유지와 존중의 상호작용적 언어사용 위반.

3.2 가정에서의 대화의 격률 위반사례

- (3-14) 부모 : (자녀가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열심히 안하는 분위기를 느껴서)
 공부가 정 힘들고 그렇게 하려면 한 단계 낮은 데를 지원해라.
 자녀 : 왜 비아냥거려요?
 ⇒ 체면 유지와 존중의 상호작용적 언어사용 위반
- (3-15) 부모 : 어디 갔다가 이렇게 늦었니?
 자녀1 : 그냥 어디 좀 다녀왔어요.
 자녀2 : 저기 강원도 멀리 있는 곳 있어.
 ⇒ 양과 양태의 격률 위반 - 모호하게 대답하지 말고 부모는 자녀를 비난하지 않는 태도와 자녀는 부모의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3-16) 부모 : 이제 공부 좀 해라.
 자녀 :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 체면 유지와 존중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라는 상호작용적 언어 기능 위반.
- (3-17) 부모 : 너는 말버릇이 그게 뭐니?
 자녀 : 친구들에게 배웠어요.
 ⇒ 상대방의 체면유지와 존중에 대한 상호작용적 언어기능 위반
- (3-18) 부모 : 내일 숙제는 했니?
 자녀 : 엄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 체면 유지와 존중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라는 상호작용적 언어 기능위반.
- (3-19) 부모 : 매일 유튜브만 보고 공부는 언제 하니?
 자녀 : 요즘은 다들 유튜브로 성공하는데 왜 엄마만 난리야? 난 취업 준비하는 거라고..
 ⇒ 질의 격률 위반과 상대방의 체면유지와 존중에 대한 상호작용적 언어기능 위반.

(3-20) 자녀 : 왜 책을 많이 읽어야 하나요?

부모 : 훌륭한 사람들은 다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이다.

⇒ 증거가 충분한 내용을 말하라는 질의 격률을 위반.

(3-21) 부모 : 야! 청소 좀 해라. 그래야 네 건강에 좋은 거야.

자녀 : 아 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하세요?

⇒ 체면 유지와 존중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라는 상호작용적 언어 기능위반—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필요.

(3-22) 부모 : 그러니까 제때제때 하라고 했잖니?

자녀 :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저를 못 믿으세요?

⇒ 체면 유지와 존중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라는 상호작용적 언어 기능 위반—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필요.

(3-23) 부모 : 시험 잘 봤니?

자녀 : 그냥 봤어요.

⇒ 양과 양태의 격률 위반

(3-24) 부모 : 네가 먹은 건 네가 치워야지!

자녀 : 가끔은 치우는데 왜 잔소리야?

⇒ 기존 대화의 격률로는 설명 할 수 없는 상호작용적 언어 기능 위반.

4. 대화의 격률 수정 제안

3장에서 살펴본 대화의 격률 위반 사례를 심층 있게 분석해 보면, 2장에서 제시한 대화의 격률에 해당하지 않는 더 세밀한 추가적인 격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즉, 기존의 대화의 격률이 대화 당사자 간의 지위나 감정 그리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일반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기존의 대화의 격률을 새로운 다른 이론으로 보충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물론 Grice 이론이 발표된 지 50여년이 지났고, Grice 이후 후기 그라이스 이론, 관련성이론 등 많은 이론이 Grice 모형을 수정하여 이미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국내 연구의 일례로, 이성범(2019: 3)은 Grice(1975)의 협동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비그라이스적 소통(non-Gricean communication)에서 화자가 대화 상대방이나 제 3자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 행위를 분석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이러한 부정적 감정에는 분노, 수치심, 당혹감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감정을 공공연히 표출하는 것은 무례한 발화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Brown과 Yule(1983)은 언어 기능 면에서 언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상호작용적인 언어(interactional language)와 업무적인 언어(transactional language)가 그것이다. 상호작용적인 언어의 목적은 사교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개인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상호작용적인 언어는 청자 중심적이고 정보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상호작용적인 사용의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Talking about “safe topic”(e. g., weather), ② Shifting of topics with a great deal of agreement among speakers, ③ Expressing opinions, ④ Maintaining “face”and respecting “face”, ⑤ Being

nice to the other person, ⑥ Being less careful about details. 업무적인 언어의 목적은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업무적인 언어는 사람보다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데 다음의 예들이 있다. ① Instructing, ② Giving direction, ③ Explaining, ④ Describing, ⑤ Ordering, ⑥ Requesting (Kim et al., 2008: 96).

담화분석은 필연적으로 실제 언어 사용(language in use)에 대한 분석이다. 어떤 경우에서든, 자연언어 발화가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단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내용표현에 관여하는 언어의 그 기능을 우리는 Transactional이라고 기술하고, 사교적인 관계나 개인의 태도를 표현하는데 관여하는 그 기능을 우리는 Interactional이라고 기술한다. 우리의 transactional/interactional 구분은 기능적인 2분법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을 취하는데, Bühler(1934)에서 나타난 representative/expressive와 referential/emotive (Jakobson, 1960), ideational/interpersonal (Halliday, 1970) 그리고 descriptive/social-expressive (Lyons, 1977) 등이 있다(Brown and Yule, 1983: 1).

제 3장의 대화의 격률위반 사례에서 기존의 대화의 격률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예들은 위와 같은 언어기능에 따라 분류한 이분법적 분류, 특히 그중에서 Brown과 Yule(1983)의 상호작용적 언어사용 기능의 특징을 대화의 격률에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장에서는 Brown과 Yule(1983)의 상호작용적 언어기능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Grice의 대화의 격률을 보완하고자한다.

상호작용적 언어 기능을 바탕으로 제2장의 (2-1)~(2-4)에서 나타난 대화의 격률에 아래의 (4-1)를 첨가하면 기존에 부족한 대화의 격률을 어느 정도 보완해서 제2장에서 언급한 대화의 격률의 위반 사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1) Try to consider interactional (interpersonal) language function

- a. Shifting of topics with a great deal of agreement among speakers
- b. Maintaining “face”and respecting “face”,
- c. Being nice to the other person
- d. Being less careful about details.

즉 상호작용적인 언어 기능을 고려하도록 노력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화제를 바꿀 때는 상대방의 충분한 동의를 얻고,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도록 서로 노력하며,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너무 세세한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대화시 언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존의 Grice의 대화의 격률로 설명이 부족하고 (4-1)의 상호작용적 언어 기능을 대화의 격률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2) 부모 :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니?

자녀 :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세요.

(4-3) 자녀 :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모님에게 통금 감시 받기 싫어요.

부모 : 그럼 혼자 살아.

(4-4) 부모 : 누가 아빠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해?

자녀 : 아빠도 그러잖아.

(4-5) 자녀 : 엄마 저 힘들어요.

부모 : 이것도 힘들면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니?

(4-6) 교수 : 이런 것도 모르면서 수업을 듣는단 말인가?

학생 : 이걸 알았으면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죠.

(4-7) 부모 : (게임을 2시간만 하기 로 했는데 2시간이 지나...) 이제 게임 그만하렴.

자녀 : 아 이것만 깨면 되는데 진짜! 게임도 못하게 하고 짜증나 정말!

(4-8) 부모 :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단다.

자녀 : 제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이세요?

(4-9) 자녀 : 아빠, 저랑 오목 한판 두실래요?

부모 : 쓸데없는 거 하지마라. 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5. 결론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나누어가는데 있어서 종종 대화 참여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대화의 격률 위반 사례는 최근 심각할 수준이다. 이런 대화 파괴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치유하기 위해 본 논문은 기존의 대화의 격률 외에 추가로 또 다른 이론을 필요로 했다. 그것은 바로 대화의 격률 위반 사례에 상호작용적 언어 기능의 특징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언어는 그 언어가 가지는 기본적인 2가지 상반된 기능 즉 기술적이면서 업무적인 기능과 상호작용적이면서 대인관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 대화의 격률에 이와 같은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호작용적인 기능이 들어가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3장의 예에서 보았듯이 최근에 우리교육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도처에서 대화의 원칙과 격률이 무너져서 대화자간에 상당한 혼란과 불신 그리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학교 수업시간이나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협동성의 원리에 기반 한 대화의 격률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대화의 격률을 평소에 학생들에게 주시시키고 지키도록 노력해야한다. 그 한 방법으로 학기 초 각 과목 소개할 때, 미리 이 대화의 격률을 설명하고 그 필요성을 언급한다면 강의 중에 일어나는 교수·학생들과의 불미스러운 대화를 사전에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성범. 2019. 비그라이스적 소통에서의 부정적 감정 표현 연구. 가을학술대회 논문발표집. 『한국현대언어학회』.

이익환·안승신 공저. 2001. 『영어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Brown, G. and G. Yule. 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Textbooks in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Bühler, K. 1934. *Sprachtheorie*. Jena: Fisher. Reprinted Stuttgart: Fisher, 1965.

Fromkin, V. and R. Rodman. 1993. *An Introduction to Language*.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Grice, P. H.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D. Davidson and G. Harman (eds). 1975. *The Logic of Grammar*. Enrico, CA: Dickenson Pub. Co.
- Griffiths, P. 2006. *An Introduction to English Semantics and Pragmatics*. Edinburgh University press.
- Halliday, M. A. K. 1970. 'Language structure and language function'. In Lyons, ed.
- Jakobson, R. 1960. *Closing statement: linguistics and poetics*, In Sebeok, ed.
- Kim, J. H., Y. S. Kim, K. S. Sun, M. Oh, and S. H. Park. 2008. *A Course for Elementary English Teacher Education*. Intelligence Community.
- Levinson, S.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nson, S. C. 2000. *Presumptive Meaning: the Theory of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Cambridge, MA: MIT Press.
- Lyons, J. 1977. *Semantics* 1,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창학, 교수
충남 공주시 웅진로 27
공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E-mail: leehak27@gjue.ac.kr